

전북대 유학생, 체험행사 통해 교육 다양성 더하다

'상상유니브 클래스 체험데이' 열어 플로리스트·무알콜카테일 등 다채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지난 7일 교내 외국인유학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클래스 부스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케이티앤지 전북본부 상상유니브와 언어교육부의 협조로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광장에서 플로리스트, 캘리그래피, 무알콜카테일 클래스와 윗놀이, 투호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중국 유학생인 이기운 학생(경영학부 3학년)은 "캘리그래피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참다운 한글의 멋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강의실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북대학교 유학생이 이번 행사를 통해 이채로운 분야 클래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맛보고, 유학생할 적응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농생명 한문화(K-Culture) 융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주제로 무수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지난 7일 교내 외국인유학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클래스 부스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방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문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년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무주경찰서, 부정선거·교통사고 예방 대책 회의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8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사전투표일 선거사범 단속 강화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찰서장 및 각 과·계장, 파출소장 등 경찰서 지휘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단속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을 계속했다.

8일 9일 2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호별방문 및 투표소 인근 투표 권유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단기적인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 사색을 마련과 단속과 사전예방을 병행한 교통 근무체계 마련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경찰서,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 합동 발굴 활동(아웃리치)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순찰하며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가정으로 혹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연계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이 날 활동은 순창경찰서 이외에도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순창 제일고 경찰 동아리 "제일·POL"이 함께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아웃리치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음주, 흡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점검 및 공연 등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편의점·마트 등의 업주를 상대로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등을 팔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였고, 노래방·PC방 업주에게도 청소년 출입시간 등에 대해 다시 강조하였다. /순창=이왕원 기자



부안경찰서, 완벽한 선거 치안 확보 지휘부 회의 개최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따라 경비·경호 대책, 선거사범 단속계획 등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완벽한 선거 치안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기능별 치안고객만족도 향상방안 및 수사과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민서장은 "빚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어느 선거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복수 기자



농어촌공사 정읍, 소성면 김성일 농가서 농촌일손돕기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진균)는 지난 7일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김성일 농가에서 매실따기 및 가지치기를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KRC영농도우미' 활동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하여 적기에 매실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직원 15여명이 자원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매실따기 및 가지치기 작업을 하였다.

신진균 지사장은 "오늘 지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지사는 금년에 농촌일손돕기, 마을가꾸기, 사회복지단체유문, 집 고쳐주기 등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복충진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여성 1인 운영상가 범죄예방활동

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 상동지구대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업소 상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여성 1인 운영상가인 네일아트, 미용실, 호프집 등을 중심으로 CCTV,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철수 상동지구대장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상가의 경우 범죄 불안심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유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 및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여성 1인 운영 상가에 대해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 2018년 수돗물 평가위원회 개최

장수군은 최근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불신감 해소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군은 지방 상수도 급수 현황과 2017년도 수돗물의 정기 검사결과, 2018년 상수도 수질검사 계획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장수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과 주민 등 6명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